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35호
11월 23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제68차 총회 제7회 임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 다짐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7회 임원회가 지난 11월 19일(화) 오전 11시 새길전교회 회의실에서 열려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을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기도, 회계 김건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히 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당부한 뒤 참석자들을 축복했으며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김건수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부흥사회 자비량부흥성회와 3차 실행위원회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사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후직 청원 건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타 교파 및 단체, 연합회 참여시사 전학인에 관한 건과 총회 목회대학원 2019년도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타 교단 기입자 연수교육, 일본 지방회 정기지방회 지원요청 건, 노숙자선교위원회 지원요청 건, 2019년도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19년도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2019년도 전국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제69차 정기총회 강사 초청 건-일본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츠치야 키요시' 목사, 2020년도 시무예배 및 제68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등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세 종류의 어불성설(語不成說)’



조용목 목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8~10)

어불성설이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 같잖은 소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논리가 한 때는 “말 같잖은 소리”로 취급되었으나 훗날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밝혀진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16세기까지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 망원경을 제작하고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을 입증했습니다. 성경 욥기 26장 7절에는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기록되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인력(引力)에 의해 일정한 위치에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발표하기 3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세 종류의 어불성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에서 천지창조와 각종 이적과 기사 그리고 인류 구속에 관한 기록들을 “어불성설”로 취급합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비과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진 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어불성설”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들의 말이 “어불성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부정하거나 거부한다고 하여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오히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사실은 “말 같잖은 말”입니다.

둘째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아닌 사람들의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므로 그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지는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학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며 그가 가르치고 판단하는 말이 오히려 “어불성설”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실상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부족한 성도들의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성도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하며 많은 재물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성공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하며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참된 행복자가 되며 참된 부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참된 승리를 획득한 자가 되며 참된 소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겪는 형편과 사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실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실상에 걸맞지 않는 말은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한국교회와 국가·사회의 변화의 중심에 서서 헌신’

청년 ‘153홀리프로젝트’ 주관 “153 교육리더 아카데미” 수료식

은혜와진리교회 청년 ‘153홀리프로젝트(Holy Project)’은 지난 8월 19일 개강한 “153 교육리더 아카데미”의 10주간 과정을 마치고, 11월 3일(주일) 저녁 안양성전 트루스빌딩 세미나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이종환 총괄팀장의 사회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 리포트 우수작 발표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수료증서 수여와 격려말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인선성전 김은혜 자매와 판교성전 이종석 형제가 이번 아카데미 과정 중에 청년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정교분리 빠르게 이해하기’와 ‘인선성전특전과 켈로부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청년들을 격려해 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성도들이 교육 주제가 된 ‘청년

153 아카데미’와 ‘대한민국 바로알기 아카데미’ 등의 성과를 말씀하며 청년들을 격려해 주었다. 조 목사는 “성경적으로 신앙관과 가치관이 바로 서 있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소금과 빛의 등과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

금번 ‘153 교육리더 아카데미’는 리더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글쓰기, PPT 제작, 발표하는 법’의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여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북한, 동성애, 미디어와 언론, 성경과 과학 등 12개의 큰 주제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의 작은 주제들을 과목으로 특강, 리포트 작성, 발표와 토론의 심화교육으로



외국인성도, 다문화가족, 노약자를 위한 의료봉사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 회원과 의료 봉사자들 헌신

은혜와진리교회 수원성전 외국인선교회는 11월 17일(주일) 오후 외국인성도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선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수원성전의 세계선교센터 2층 진료실과 치과진료소에서 실시된 의료봉사에 평소 병·의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과 독거노인 분들이 찾아와 정성 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고, 추수감사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선교회 회원과 아주대병원 봉사동아리 회원 및 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들이 이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였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야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태)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정의학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행담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6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교단 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CTS TV, 제23대 공동대표 이·취임

임시주주총회와 102회 이사회 열어...제23대공동대표이사 이취임감사예배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 제23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가 CTS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역대 CTS공동대표이사들을 비롯해 CTS 이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취임 감사예배는 김진호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무)의 사회와 21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전계현목사의 설교, 17,18,19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전용재 감독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1년간 CTS 공동대표이사로 섬긴 림형석 총회장(예장통합)과 이승희 총회장(예장합동)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신임 공동대표이사에는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 예장합동총회 김종준 총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들은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CTS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신임 공동대표이사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CTS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다음세대를 부흥시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CTS는 이날 공동대표이사·취임 감사예배에 앞서 임시주주총회와 102회 이사회를 열고 공동대표이사 선임 건과 사장 연임 결의 건 등을 다뤘으며, 2019년 주요업무와 2020년 사업계획 등도 보고했다.

한장총 2019 사랑의 김장나누기

무료급식소 및 독거노인들에게 김치 전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여교역자협의회(회장 김희신 목사)에서 지난 11월 6일 오전, 2019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한국교회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사)장흥은친구들(서울시 중구)강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김장을 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김치 12박스(20kg)를 전달하였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추운 겨울을 준비하며, 이렇게 사랑을 담은 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가 있어서 매우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교역자협 회장 김희신 목사는 “이번만의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여교역자협의회에서는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 만든

김치를 성북구 정동 지역 ‘수정무료급식소’(대표 이승진 목사)에 전달했다.

한편, 한장총 신하 여교역자협의회는 매년 겨울마다 어려운 이웃을 섬겨오고 있다.



통일교 ‘무료관광 포섭’ 다시 기승, 경계 촉구!!

해외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기도회나 세미나 참석 지원, 교리 주입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대표회장 최재우 목사,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 이하 통대협)의 이영선 사무총장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통일교의 일반교회 목회자들의 포섭을 위한 무료관광 현혹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하였다.

통일교는 이미 80~90년대부터 일반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일본관광 등을 무료로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일반 교회 목사들에게 원리강론 등 자신들의 이단 사이비 교리를 주입시키고 세뇌시켜 통일교 목사로의 개종을 위하여 인간질을 써 왔다.

통일교가 주로 일반 기독교 목사들 현혹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국제 세미나, 포럼, 기도회 등의 개최이다.

이를 통하여 처음엔 통일교 주회 행사라는 것을 숙인 후,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 행사



를 진행하고 은연중에 자신들의 사이비 교리를 주입시킨다.

국내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후 해외 관광을 무료로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해외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기도회나 세미나 등을 홍보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이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주의가 요청되는 바이며 통일교 행사임을 알았을 경우 바로 항의하고 행사에서 이탈해야 함을 통대협 이영선 사무총장은 강조하였다.

최근 통일교 해외 무료관광에 모르고 참여했다가, 항의 후 행사에서 이탈하여 자비로 귀국한 소수의 목사들이 통대협 이영선 사무총장에게 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에 일본에서 통일교 관련 단체인 한민족종교협의회에서 진행한 한일기독교교지도자모임이 일반 통일교 연수원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먼저 9월 30일 하림각에서 진행된 기독교정체성회복 및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행사에서 통일교 관련 인사들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황보 군 지구장과 통일교 관련단체인 한민족 종교협의회 김주호 회장이 일부순서를 맡았다.

마라나타세계기독교총연합회 설립

한국교회 신앙공동체 회복과 연합에 주력

(사)마라나타세계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재 신진목 목사, 대표회장 강사광 목사)가 사단법인을 취득하고 지난 11월 18일(월) 오후 3시 인천로얄호텔 본관(그랜드볼룸)에서 법인취득 감사예배를 드렸다.

동 연합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믿음과 바벨을 숭상하는 오늘의 세대를 보면서,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절박감 속에서 창립되었으며, 사악한 오늘의 세대 속에서 성서와 초대교회로 돌아가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나라운동을 발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연합회의 이름인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란 뜻을 갖고 있으며, 이 땅에서 제2의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특히 동원



합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공동체를 회복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연합교회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연합회 대표회장인 강사광 목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으로 타락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신앙선배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하나님나라운동에 참여했다.”면서, “한국교회

는 거된 길을 멈추고 돌아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먼저 한국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합회 대표총재인 신진목 목사는 “오늘 세상은 악하고 악하다.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양심은 마비되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이탈한 것은 물론, 분열과 갈등을 일삼으며 서로를 비방하며, 다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사두지는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우성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독교 천사운동 사랑의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

목회자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

기독교천사운동연합(대표회장 김수배 목사/이하 천사운동)은 갑작스런 목회자의 죽음으로 홀로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사람으로 감싸 안아주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목회자유가족들이 사랑의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11월 17일(주일) 오전 열린교회(김재원 목사)와 오후 동백열방교회(장기철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어 축복교회(오영대 목사), 광교인디옥교회(김정석 목사), 안성제일교회(양진 목사), 안산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에서도 찬양콘서트를 이어간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천사운동 홍보대사들인 크로스오버가수 김정, 나유미(나경화 목사), 송나연 등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김윤서, 김영배, 전용대, 김민식, 이광희, 김하진, 임재, 오수범 외 다수의 목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그 밖에 정상급 성악가인 김남주, 이연성, 가수 배은(주빛소리교회로컬예술협회), 윤희상, PK, 멘토, 아가페예술선교단 등 많은 크

리스턴 음악인·연예인들도 교제 출연한다.

목회자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다 남편과의 사별로 홀로 남겨진 ‘홀사모’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사력을 비워 주고 교회를 떠나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과 생계에 대한 막막함이 기증된 상황이다.

‘2019 숲속작은나라 회복세미나’

예성,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대상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문정민 목사) 마태목회위원회가 주최한 ‘2019 숲속작은나라 회복세미나’가 지난 10월 28일(월)부

터 30일(수)까지 시냇가푸른나무교회(신용백 목사) 수양원인 경기도 양평 숲속작은나라에서 개최됐다. ‘사명자를 사명자 되게’라

는 주제로 예성 소속 미자립 농촌 개척교회 10년 이상된 목회자 35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된 금번 세미나는 시냇가푸른나무교회가 경비를 전액 후원했다.

세미나는 첫째날 여는 예배(설교: 총회장 문정민 목사)를 시작으로 신용백(사명자를 사명자되게), 최종인(사명자의 성경적 자세), 강동진(예수마를 보내줄 대표/선교적 교회), 이중복(사명자에게 주시는 축복) 목사가 각각 세미나를 이끌어 많은 은혜를 끼쳤다.

세미나는 이밖에 찬양과 기도회(송민우 목사), 콘서트(SBS 감경철 단장), 경강회(곽해신 사모 박영수 목사), 할렐 산책, 소그룹 발표(교단총무 이강준 목사) 및 주제토론, 캠프 파이어, 목회간증과 코멘트, 세미나 영상 시청 등으로 전체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예수교대한웨슬레회 36회 정기총회

교단연합 세미나 및 수련회 등 추진

예수교대한웨슬레회(총회장 정동석 목사) 제36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소재 삼성교회에서 열려 총회장 정동석 목사를 비롯한 임원을 위임시키는 한편 국내외 선교를 강화해 교단정상에 동력이 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1부예배는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오도경 목사의 총회발전을 위한 기도, 서영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부총회장 서영민 목사는 속 4: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목사, 사 람이 주인이 아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 의 다락방에 모였던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그들을 통해 온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웨슬레총회의 할 일은 십자가의 진 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계속해서 “비록 작은 무리의 모임이지만 인간의 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성화의 은총으로 삼 전리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무처리 시간은 총회보고에 이어 회계 및 각종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하고 임원선출은 총대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전 임원을 위임하기로 했다.

월례회 및 아우회 갖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0월 28일(월), 29일(화) 1박 2일의 일정으로 거진양문교회(담임 황동운 목사)에서 10



월 월례회 및 아우회를 가졌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2시간 30분을 달려 거진에 도착한 회원들은 먼저 거진양문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조광선 목사

(순복음반석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양항자 목사(영동교회)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 양 목사는 '메시아 계보 속에 나타난 여인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계보에 기록된 네 명의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사를 증거하며 특히 '밋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하여 사람에게는 잊혀진 자였으나 우리아의 역울함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다.

이어서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의승리교회)는 삼상 16:1-5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임을 전제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윗과 같이 스스로 깨닫고 채찍질 하며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원들이 될 것을 축복하였다.

이어서 거진양문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회계 김정순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헌금기도 후 증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전교회)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쳤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인근 해변에 위치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회원들은 모듬집 요리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영수 목사(태내순복음교회, 가족셋트 전도아카데미 학장)의 주도로 식당 사장님을 결신시키고 거진양문교회와 정기적으로 사업장 예배를 드릴 것을 약속하는 전국잔치가 펼쳐졌고 모두 함께 축복하는 기쁨을 누렸다.

다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숙소인 청간정콘도에 도착, 숙초중앙시장에서 구입한 싱



싱한 해산물로 직접 요리하여 푸짐한 저녁만찬을 즐긴 후 월례회를 진행하였다.

김정순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율동을 함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후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의승리교회)의 사회로 시종 일관 여유롭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 발전을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아침 청간정 앞 동해의 푸른 바다와 해변을 만끽한 후 서둘러 설악동으로 향한 회원들은 때마침 절정기에 이른 단풍이

오색으로 물든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신행을 이어갔다. 하얗게 펼쳐진 비워 계곡 위로 드러난 비산대의 위용, 단풍과 어우러진 비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솜씨를 찬양하며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은 1박 2일의 일정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낸 이번 아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물론 지방회로 맺어진 동역자로서의 뿌듯함을 안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강천산에서 단합대회 갖고 사랑의 교제 나눠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심해원 목사)는 지난 11월 5일(화) 순창 강천산에서 단합대회를 갖고 지방회와 교단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회원들은 순창 강천산을 물들인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참된 믿음 생활을 통한 성결 강조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홍규 목사)는 지난 11월 5일(화) 오전 11시 장자순복음교회(담임 오수경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종한 목사(양문교회)의 기도과 지방회장 안홍규 목사(한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 목사는 마 5:3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하여 낯과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른 가치관을 강조하며 참된 믿음의 생활을 통한 성결본임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교단 증경총회장 진동웅 목사(양양



은혜와진리교회)의 헌금 및 축도로 1부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정진학 목사(엘사랑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각종 회부를 은혜가운데 처리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장자순

복음교회(담임 오수경 목사)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누었고, 이동하여 국화축제가 열리는 고북에서 국화향기를 맡으며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 즐거운 한 때를 담소하며 주안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영혼 구원에 더욱 진력하는 사역자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1월 11일(월) 오성사랑교회(담임 박종원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진현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과 조정훈 목사(하늘소망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모 증창단의 특송 후에 증경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9:20-27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실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섬리가운데 땅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가 사라지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83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는 처음 심은 포도나무의 과일주를 먹고 취하게 되어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마귀는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포도나무에 양의 피와 사자의 피, 그리고 원숭이 피와 돼지 피를 뿌려서 인간들이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양같이 순하지만 한잔이



더 들어가면 점점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 뛰다가 결국엔 토한 것을 돼지가 먹듯이 술은 병탕의 지름길임을 말하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지"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호신 목사(천양교회)의 헌금기도와 박흥열 목사의 광고 후에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11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오성사랑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는 후, 인근에 있는 진전 봉당리와 초평호수를 둘러보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제주한마음교회, 새가족 환영 초청공연도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담임 김건수 목사)에서는 지난 11월 17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추수감사주일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

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한마음교회 담임 김건수 목사와 성도들은 그동안 전도해왔던 영혼들 40여 명을 초청하여 오전에 추수감사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미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점심식사 후에는 새가족 환영 초청공연을 관람하였다.

제주한마음교회 소속 물맷돌위십팀이 국악전양에 맞춰 부채춤과 장구춤 공연을 펼쳤고 풍성한 선물도 제공해 주었으며 각각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신앙생활을 결단케 하였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주는교회(담임 강원석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유병일 목사(내수평강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신현찬 목사

(기쁨충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강원석 목사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시 137:1-3 말씀을 본문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나면 이국땅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범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불

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며 "우리 지방회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목양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성미 전도사(은혜서원교회)의 헌금기도, 권영무 목사(우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진행으로 정재광 목사의 재무보고, 조재호 목사의 회계보고, 민병훈 목사의 서기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인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본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후 김경준 목사의 마무리 기도으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주는 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11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갖

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박웅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후 시작한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 서기 육준수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강인덕 목사의 요일 4: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예정희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지방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서기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무서기 보고, 재무 강인덕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육준수 목사의 회계보고 후 기타 인건에 대해 토의하고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최형택 목사

· 전라지방회 중경회장
· 평양은혜와전라교회 담임

비 내리는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 가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처량하게 버려진 가구들을 보면 한 때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 독차지를 받았던 가구였을텐데 이제 쓸모없게 되어 버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지만 또 어느 순간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건만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 줄 때 외로워집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화려함 뒤에 슬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살

아기는 사람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중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셨지만 유독 아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좋지 않았습니

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려 70~80%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50~6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뇌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는 병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뇌 안에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뿐

아니라 모든 질병은 외로움과 친밀합니다.

한번뿐인 우리 인생을 외롭게 살아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외롭지 않습니다

요 14:16-17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매순간마다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고 어떤 분위기에 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 합니다.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 힘이 되어 주세요.”

버림받고 외로울 때도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동 정

태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제2회 코람데오닷컴 포럼이 ‘생명문화 VS반(反)생명문화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11일(월)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가 주강사로 나섰다. 신 원장은 “교회는 태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인식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선간중



2019년 '남가주 밀알의 밤'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현지시간) 사울 동안 ANC 온누리교회와 남가주 새누리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번 밀알의 밤 메인 게스트로 초청된 가수 선 씨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즐거운 공연을 선보였다.

탈북민 대안학교 '여명학교'



여명학교는 지난 11월 21일(목)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3층에서 '제15회 여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여명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로서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다. 여명학교 이용훈 교장은 “새로운 학교 건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신원 총동문회장에 조예한 목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제24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1일(월) 연세동문회관에서 개최되어 신임대표회장으로 조예한 목사(부전감리교회)가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다. 조예한 대표회장은 “교람테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군을 무너트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그 동안 군인권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와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지난 8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임 소장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요청도 하고 있다.

그 고발의 주된 내용은, 두 단체가 낸 성명서에 의하면, 임 소장이 지난 2018년 12월 소위 계엄령 문건이라며 폭로한 사건으로,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 모는 계기가 된 사건과, 2018년 7월 박찬주 대장에게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군대의 4성 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을 들고 있다.

또 2017년 11월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의 심의 위원에 임 소장을 위촉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해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이 위원회의 심의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3성 장군급(좌관급)으로 하는데, 임 소장은 2004년 군형법 92조 6(형문성규 금지)을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하여,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은 첫째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조항인데, 임 소장은 피해자 박찬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보고 있다. 임 소장은 피해자(박찬주 대장)가 공관 비품을 절취하였다고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이다. 소장(尙藏)에서는 임 소장의 소위 계엄령 문건 유출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일반에 누설한 경우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발인이 작성하여 생성한 문건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09년에 임태훈 소

장에 의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2012년 민주당 비례 대표에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있고, 또 2017년 11월에는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에 위촉되기도 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이 단체는 나름대로 군대 내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여 출발했지만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현상금을 내건 건이 법에 어긋난 ‘모금 활동’을 벌여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거기다 이번에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당한 사건은, 임 소장이 과도하며 과욕에 의한 폭로성 행

위가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군인권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피의(被疑) 대상자를 억울하게 하고, 국가의 기밀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함부로 폭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문제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년간 활동에서 시민단체로서 상당대 알려졌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정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번에 고발 사건을 검찰에 접수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에 보면, 군대의 생명은 보안과 군기이며, 군인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불신과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스러운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무리한 활동을 통하여 군을 무력화 시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갑질’ 행동을 한 것이 법률적 판단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교과서의 ‘절대 연대’ 기술 오류는 개정되어야 한다” 청원서 제출

(사)교진추 ... 15일(금) 교육부 등에 교과서 개정 청원

진화론은 천지 만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자연주의적 주장으로 우연(chance)과 시간(time)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 가는 가설이다. 박병으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을 것이라는 자연주의적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자연선택 등에 의해 ‘우연’이 반복을 거듭하면서 지금과 같은 다양성을 가진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진화 가설은 분자생물학과 정보 이론 등의 발전 등으로 생명체의 진화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화론은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고, 진화나 오랜 연대를 논문에 넣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워 바른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와 지구의 연대가 정말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되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연대가 정말로 고신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된 과학적 사실일까?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사)교진추, 회장 이광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가 오래되었을 것이라는 신념의 핵심적인 증거로 과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절대 연대’의 한계성과 문제점 등을 학문적으로 검토하여 과학 교과서의 ‘절대 연대’의 기술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한다. (사)교진추는 이 청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왜 (사)교진추는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확고한 과학적인 측정법처럼 여겨지고 있는 “절대 연대”의 청원에 그토록 많은 힘을 쏟아 부은 것일까?

(사)교진추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절대 연대”에 대한 정의가 마치 고신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듯이 매우 확정적 및 단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절대 연대’ 중 한 가지 범주에 속하는 ‘방사성 연대 추정법’(교과서 등에서는 ‘측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암석 등에 들어 있는 모원소나 지원소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과 계속된 그것을 바탕으로 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추정하게 되는 수치는 다르기에 측정법이란 용어 대신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도 다른 모든 자연과학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계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 연대’라는 단어의 낱안소와 동일시하면서 방사성 연대 추정치를 통해서 지구의 연대 약 46억년이라는 것이 마치 증명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든다. 그러나 ‘방사성 연대 추정법’ 또한 많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한계성과 문



제가 있어 있는 추정법일 뿐이다.

그런데도 현행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나 그것의 한계성 및 문제점을 전혀 소개하지 않은 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 및 교사들에게 심각한 오개념을 심어 주고 있다.”

이에 (사)교진추는 ‘절대 연대(絶對年代) 또는 절대 연령’에 대해 고등학교 『통합과학』 및 『지구과학 I · II』 교과서에 기술 오류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5일 교육부에 제출한다.

지난 해, “표준 화학의 문제점과 한계성”에 대해서 개정 청원을 한 것에 이어 올하는 “교과서의 절대 연대 기술은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제 10차 청원서에는 전 · 현직 대학교수 등 과학 관련 교육자들로 구성된 청원위원회의 의견을 담았다.

(사)교진추는 ‘현행 교과서(『통합과학』, 『지구과학 I · II』 등, 이하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절대 연대’ 개념은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이용해서 추정한 수치 연대가 마치 지구나 암석 등의 정확한 연대를 알려주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절대 연대의 한계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며, 과학적 사고를 저해한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절대 연대 및 그와 관련된 수치 등에 대한 단정적 기술 방식을 지양하고 절대 연대의 한계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기술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함양하여 진정한 교과 역할을 진작시키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개정 청원 목적을 설명한다. 이 청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도 제출된다.

(사)교진추는 이번 제 10차 청원에 이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지시학의 법칙’(법칙이란 용어가 사용될 수 없는 진화론에 바탕을 둔 가설(동물군 또는 생물군 전이) 등을 포함)에 대한 기술 내용의 문제점과 한계성에 대해 다음 청원도 준비 중이다.

마치 과학적으로 불변의 사실처럼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교과서의 저신로 과학에 속하는 기원 또는 역사 과학과 관련된 기술들의 문제점과 한계성을 청원서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이 땅의 교과서가 바르게 바뀔수 있도록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 및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사)교진추의 홈페이지(<http://st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터키’를 가다

기독교언론협회... 데린구유, 사도요한교회, 에베소 등 역사탐방 진행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사명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한국기독교언론협회 회장 문병원 국장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도자 사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터키를 찾아 소아시아 초대교회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신약 속 전도자 탐방을 계획한 이후, 1년여 간 수차례에 걸쳐 연구와 논의들 지속해 온 언론협회는 최근 교계 기자들로 구성된 총 19명의 탐방단을 확정하고, 터키로 향했다.

이후 탐방단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에서 신앙을 이어갔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열정과 지혜, 피와 순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린구유(지하도시), 사도 빌립의 순교지로 추정되는 히에라폴리스 빌립교회, 사도요한의 무덤이 있는 사도요한 교회,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두란노 서원(헬스스도서관)을 직접 볼 수 있는 에베소(에페소스) 등을 둘러봤다.

탐방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그의 구원을 전하는데 천리길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전도 루트를 직접 둘러보며, 언론으로서



의 문서 선교 사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한편, 생명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열정에 탄복했다.

이번 탐방단의 최고령자였던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는 “터키를 둘러보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고백하고 있는지 새

삼 깨닫게 됐다”면서 “자신의 온 생명과 삶을 걸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초대 기독교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임의로만 주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켜 보아야 할 것이 다”고 말했다.

김만규 목사는 88세의 고령에도 험난하기로 유명한 데린구유의 지하도시를 직접 둘러보는 등 기자로서 소아시아 초대교회의 흔적을 되새기는데 큰 모범을 보여 후배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탐방 기간 중 초대 기독교의 성립과 역사에 대해 특강을 펼친 이사장 강준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는 “오늘날 전 세계 최대 종교로 자리한 기독교가 있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헌신과 순교가 있었으며, 다양한 회의와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완전히 정립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교계 기자로서 정론집필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양심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올바른 역사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번 탐방을 계획하고 여행 내내 탐방단을 이끈 회장 문병원 국장(한국교회공보)은 “짧지 않은 기간, 고된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보우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회 단계부터 터키에 직접 도착하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계 기자들로 소아시아 초대교회를 직접 둘러보게 된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자, 큰 깨달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탐방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교계 언론들을 위한 문서 선교에 힘쓰며, 언론협회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언론협회는 오는 12월 중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연합신문 제공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훌륭한 군사 시니어 3기 모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 119 : 28

기간 | 12/19-21
장소 | 괴산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대상 | 40세 이상 장년
회비 | 무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문의 | 010-5145-3816
(인터뷰 후 등록)

교단공과 신청

출판언급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중고등부학생용(교사용은 별도로 발간 안함) : 5,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중고등부 공과교재

- ① 컬러 삽화가 삽입되어 이해를 도와줌
- ② 주제별로 구성되어 신앙관 정립에 도움이 됨
- ③ 사회적, 종교적 이슈가 삽입되어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됨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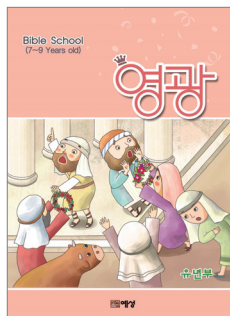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 2019년 12월 31(화)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 02)2675-51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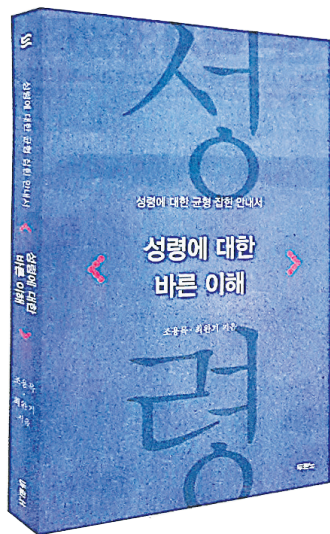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번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향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가을 친교모임 및 연합성회 개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2019년 가을을 맞아 회원들의 친교와 신하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가을친교여행과 연합성회를 가졌다. 먼저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회 회원들은 중국 '위해' 지역 여행길에 올랐다.

고 청일 전쟁의 현장인 유공도 등을 방문하여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고국의 목회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10월 월례회를 가졌는데, 1부 예배는 총무 임형순 목사(아멘교회)의 사회, 부회장 은금홍 목사(선한이웃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최금자 목사(온누리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의 마음으로 회원의 하나 됨을 지키자"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고, 2부 월례회에서는 회장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정광호 목사의 기도

후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또한 지방회 산하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한 지방회연합성회는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매일 저녁 7시 30분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성회에서는 증경회장 김종연 목사(의정부은혜교회),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주내순복음교회), 증경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매일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운집한 집회를 통해 첫째날은 탐진된 영육이 엘리야처럼 회복되었고, 둘째날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시간을, 마지막날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총회 행사와 겹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총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2019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 5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9년 11월 29일(금) 17:00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자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협)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세계 최초 중독치유 전문목회자 양성기관

국제중독복지전문신학연구원 2020년 신입생 모집
미국 B.P.C.A 인준 대학원과 연계 학위 취득 가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중독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담배중독, 성식중독, 인간중독, 종교중독 등 중독의 유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사회, 전 세계의 문제로 방치되면 국제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한기총 총무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대학강단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해 온 박영률 목사는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문제를 해결할 기독교지도자를 교육하여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목회자를 양성해 나가고자 세계최초로 중독 전문목회자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국제중독복지전문신학연구원(IATI) 2020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전문가 초빙, 교수진 확충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최철의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한 IATI는 금번 2020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사회의 중독 문제가 날이 갈수록 매우 심각해짐에도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마땅히 대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신앙으로 중독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세상을 돌보고,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목회자들에게 있어 중독치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하나의 사명임을 직시하고, 중독 치유 전문 목회자를 집중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IATI는 중독전문신학사(B.Th.)와 중독전문목회학석사(M.Div.), 중독전문신학석사(Th.M.), 신학박사(Ph.D.) 과정을 모집한다. 특히 본 과정의 졸업생들은 알코올중독전문상담사(AAPO) 1급과 2급, 국제중독전문상담사(NAADAC I-CAC)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미국 성경장로교회(BP.CA.)



인준 코헨대학원과 연계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총장 박영률 목사는 “중독 문제의 해결 없이 국민의 행복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술 문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이웃들간의 불화가 일어나며, 선량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률 목사는 IATI의 전문성을 위해 한국교회 각 부분의 전문가를 교수로 청빙했다. 신학과 중독 모든 분야에 있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각오다. 본 학교의 교수진은 총장 박영률 목사를 포함해, 대학원장 김철해 교수, 권정희 교수(전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광채 교수(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진순 교수(백석대 기독교교육학 박사), 김도형 교수(기독교국제금융학교 대표), 이미숙 교수(세움교육원 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전문가로 헌신해온 김철해 교수는 “진정한 복지는 전인구원에 있다”면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단순히 게임을 끊게 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통한 전인구원으로 아이의 삶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IATI는 일반 신학교와 달리 커리큘럼의 절반

정도는 중독과 관련한 이론과 임상실습 등이 포함되어 중독 전문사역자를 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교수는 “중독 완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면서 “정신병원과 심리치료 등 세속적인 치료방식은 중독의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현상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기에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게 된다. 중독의 근원을 치료해야 한다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희 교수는 “박 총장님을 통해 이 학교에 처음 발을 들인 이후 1년 동안 이 사역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지켜봤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려는 열정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감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IATI는 본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 내 전문 사역자로 일하거나, 전문 상담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기에 중독관련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www.IATI.or.kr 02-2682-2092, 2612-0636
admin@iati.or.kr/010-7210-0257, 010-7184-7717(이미숙 박사 이석인 간사)

신장기증인, 2박 3일 ‘신기한 산행’ 진행

“신장기증 후에도 한라산에 거뜬히 오를 만큼 건강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신장기증인들과 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이 함께 한라산으로 가을 산행을 떠났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새생명나눔회(신장기증인과 이식인의 모임)와 ‘신기한 산행(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한라산 산행)’을 진행했다.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차남규)이 후원하는 이번 산행에는 생촌 신 신장기증인과 이식인이 52명이 참여했고, 2박 3일간 한라산 등반을 비롯한 에코랜드 테마파크 관광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내 최초로 부부가 모두 생명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관재만, 김교순 씨를 비롯해 7쌍의 부부 신장기증인들과 대를 이어 생명나눔을 실천한 부자 및 모자 신장기증인, 자매기증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가족 단위 기증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산행에 참여하는 이들 중 최고령으로 30여 년 전 1년의 차이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신장을 기증한 관재만(66세, 1992년 9월 30일 기증), 김교순(81세, 1993년 8월 26일 기증) 부부는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할 모습으로 한라산 산행에 도전했다. 이들 부부는 “신장을 기증한 뒤에 오히려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더니 체력은 젊은이 못지않다”며 등반에 열의를 보였다.

이들 이외에도 생촌 시에 신장과 간을 모두 생면부지 타인에게 기증한 이들이 5쌍이나 참석했다. 그 중 신장과 간을 타인에게 기증했을 뿐 아니라 한혈도 500회 이상 참여해 한혈왕이라고 불리는 손흥식 씨는 “나의 건강한 신체 일부를 나눠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새생명나눔회가 벌써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생명나눔을 실천한 뒤에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행이라 더욱 힘이 난다”는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산행에는 신장을 이식받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두 명의 이식인도 동행해 건강을 회복한 기쁨을 기증인들과 함께 나눴다.

신간 안내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이야기



단순한 창조의 과학적 검증과 지식 전달이 아닌, 아이들의 영혼 구원과 영생을 목적으로 두고 쓴 책. 하나님을 믿어가는 세대들 위한 싸움에서 아이들에게 창조를 가르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창조과학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확인해보려고 연구하는 것이 되거나 과학만 따지고 들어 이성만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이 세상은 원래 무엇이었으며, 왜 내가 뿌듯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지를 알려 주어야 아이들은 멀어졌다가도 돌아온다.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있는 복습게임은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핵심을 깨닫게 도와준다. 과학이 어렵다고 느껴지던 친구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창조과학에 대한 흥미와 신앙적 도전을 줄 것이다.

저자 : 김재욱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19-10-31 | (170*210)mm 184p | 판매가 : 14,000원

나를 변화시킨 일곱 가지 질문



민음의 세계에는 거리가 있을 법한 기술경영,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 전문가인 저자가 이십 대 후반 예수님을 영접한 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에 대한 여러 의문과 의심의 질문들을 회파하지 않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변증적 체험적 신앙의 여정을 진술하면서도 답답하게 답했다. 나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진실한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찾는 영적인 질문을 하기 원하고 믿음의 대답을 듣기 원하는 분들에게 공감과 격려가 되고,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이 공명한 분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선택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저자 : 손재석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19-11-18 | (140*200)mm 256p | 판매가 : 13,000원

서양 고전 읽기 특강 높은 생각과 깊은 대화를 위한 서양 고전 14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혼자 공부하는 능력을 전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이끌어 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수년 동안 청소년 인문학 공부방 ‘옵니버스(Omnibus) 서원’에서 나눈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양 인문 고전과 친숙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다. 아쉽게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쓰인 서양 인문 고전 입문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독교 청소년, 대학생, 청년, 교사, 목회자는 물론이고, 특별히 자녀와 함께 책을 읽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위해 의도되었다. 비록 서투르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입문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मदद부 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

저자 : 안정진 | 출판사 : 좋은씨앗
발행일 : 2019-11-20 | (170*225)mm 464p | 판매가 : 24,000원

휠체어는 나의 날개 무료배송 상품입니다.소득공제도서정가제



우리나라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의 음악대학 교수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차인홍이 ‘넙사벽’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휠체어 생활을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지은이는 이 책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인생의 동반자 아내와의 만남, 미국 유학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장애인 장학재단’에 대한 비전까지 그가 겪어온 다양한 삶과 앞으로 펼쳐갈 비전이 진솔하게 그려진다. 지은이는 초등 과정을 겨우 마친 자신이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음대 교수가 되기 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탄원의 축복’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저자 : 차인홍
출판사 : 미래사CROSS | 발행일 : 2019-11-20 | 신국변형판 양장 248p | 판매가 : 13,000원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라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라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예장 백석대신 총회장 유만석 목사

슬림총회 운영과 목회자/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교단 된다



11월 8일(금),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유만석 목사)는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서기 유기성 목사, 전 서기 김병동 목사가 참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보도자료 없이 진행되었는데, 지난 2015년 9월 예장 백석 교단과 예장 대신 교단이 합하여, 예장 백석대신 교단으로 통합되었으나, 올 해 9월 다시 백석교단으로 환원되었고, 통합정신을 지킨다는 예장 백석대신 교단이 그 명칭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장 백석대신 교단이 지난 9월과 11월 4일 총회로 열린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느껴서, 예장 백석대신 교단의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유만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총회와 11월 4일 속개총회를 가졌는데, 총회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제하고, 백석대신 교단의 교세는 대략 1,000~2,000개 정도 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총회를 운영함에는 '슬림 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재정을 교회회에 해역이 돌아가도록 하는, 효율적/경제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는, 고려신학대학원(원장 신원하)과 MOU를 통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체 지방 신학교 2곳을 교단 인준 신학교로 지정하여 엘리

트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하였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왜 제42회기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구 백석이나 구 대신은 42회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교단이 4년 전에 통합할 때에도 그 전통을 그대로 사용했고, 예장 백석대신 교단은 통합정신을 잇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사용했으나, 차후에 회기 명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왜 교단 대 교단으로 합해졌는데 나누어지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교단 내 농단이 있었으나 주관 없는 리더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비대위가 시정을 요구하여 총회에서 합의가 반영되기를 바랐으나, 더 심하게 악화되므로 개혁이 요원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 대신측을 일거에 내치는 것을 보면서 외롭게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여성위원회 등 여성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추가로 영입되는 목회자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제 들어온 여성 목회자는 그대로 받기로 하고, 추가로 들어올려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과 검증을 할 것이며, 교단에 들어온 목회자에 대한 인권과 권익은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단 내에는 시조적인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하였다.

구 대신 측 교회들의 참여는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서는, '구 대신 측 교회로 참여하는 교회는 600-650교회 정도 되고, 구 백석 교단 측으로부터는 약 400-60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지난 11월 15일(금)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했다. 아무 연구도 없는 곳에서 개척한지라 한 영혼이 교회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담임목사인 나조차 '과연 이 책략하고 강박하기 짝이 없는 인간 땅에서도 이게 통할까?'라는 반신반의하는 용심도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 지역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이곳 انسان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했다.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시작하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약 2시간의 전도강의와 동영상으로 강도 높은 전도훈련으로 시작된 가족세트 전도세미나는 그야말로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듯 순식간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장이었다. 우산 속에서 불과 1, 2분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이었다. 그 어떠한 강한 자라도 준비된 영혼이라면 이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특별한 전도물품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 전도! 자기 신상을 서슴없이 술술 말하는 능력 전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빌립전사, 사도들이 사용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전도를 방불케 했다.

특히 전도하기 위해 처음 찾아갔던 부동산중개소 남자 사장님이 순한 양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업장 예배를 매주 월요일 분을 여는 오전 10시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며, 고패를 불이도록 허락하며, 인증사진까지 함께 하는 확실한 전도였다. 이 전도의 특징인 성령님의 위임에 압도됨을 보았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왔다.

전도훈련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식당의 여자 사장님과 종업원을 영접기도로 교역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세상의 무게에 지치고 사역의 무게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려는 순간 만난 오아시스 같은 이 세미나를 통한 가족세트전도법으로 다시 한 번 복음의 불꽃을 옮겨야겠다.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모르는 채 쓰러져가는 많은 길 잃은 양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며 던지며 말이다.

주님 소원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고, 부흥은 어떻게 해이되는가 높고 민스라였으며, 이를 목회자의 숙제라 여겨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빗속에서 1시간에 15명의 영혼들이 전도 되는 현장을 보았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우리 교회에도 주시옵소서.

가족세트전도와 박영수 목사의 전도세미나는 참으로 탁월한 주님의 능력이다. 가족세트전도 43년의 노하우가 12주 과정으로 시스템화 되어있어 반복하여 훈련을 받고 전도하면 되는 것을 보았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트전도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길 소망한다.

인산능력교회 담임 김지영 목사

동영상 :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CCM 송정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 공연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광야아트센터에서 개최!

깊은 울림이 있는 특별한 보이스로 가장 사랑받는 CCM 아티스트 송정미가 올 겨울, 17번째 브랜드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러브 Christmas in Love>로 돌아온다.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광야아트센터에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올 한해 광야 한기운대를 걷는 것처럼 외롭고 치열한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무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교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크게 사랑받고 있는 CCM 아티스트 송정미는 1988년 데뷔한 이래 6장의 정규앨범 등으로 총 200만장의 앨범 판매를 송정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지며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장르가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CCM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등 대한민국 3대 무대에 모두 서며 전회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조용필, 패티김, 인순이, 이선희, 김범수에 이어 CCM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 입성,



가장 큰 아이작 스톤 오디오로 2800석을 매진시키는 등 가장 사랑받는 CCM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작년,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스태프들과 함께 CCM 아티스트로서의 지난 30년을 총망라하는 <송정미 30주년 콘서트 The Voice>로 큰 감동을 선사했던 송정미가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올해,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다시 돌아온다.

해마다 12월이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인 러브 Christmas in Love>는 송정미가 CCM 아티스트로서 쏟아지는 연발 공연들 속 진짜 성탄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2001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브랜드 콘서트. 한해도 빠짐없이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해왔을 만큼 송정미의 시그니처 공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17번째를 맞는 올해는 12월 24일(화)부터 31일(화)까지 광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마포구 NGO 자원봉사박람회

지역주민대상 뷰티서비스도 실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유동근 청장)이 주최한 '2019 마포구 NGO 자원봉사박람회'가 지난 10월 31일(목) 마포구청 어울림 마당에서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NGO자원봉사박람회에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월드뷰티웍스(장현일 이사장, 최에스터 회장) 주관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 가운데 처음으로 네일아트 등 뷰티 서비스를 받아 기쁘다고 환한 웃음으로 보답하였으며, 뷰티서비스를 받은 많은 어르신들이 미소로 감사함을 표시해 뷰티봉사자들에 게도 큰 보람을 준 행사였다. 특히 주최기관인 유동근 마포구청장과 이팔레 마포구의장이 뷰티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뷰티서비스를 위해서 (사)월드뷰티웍스 장현일

이사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최에스터 교수(신원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과), 장선영 교수(영화예술대 미용예술학과), 월드뷰티웍스의 조현주 감사들 비롯한 뷰티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사)월드뷰티웍스는 법인을 창립한 이후부터 매년 재능기부를 통해 마포구 NGO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해 사랑과 나눔의 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소금물) 가글로 올 겨울 감기를 이기자!!!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 |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낮 12시~5시까지
- | 장 소 |**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379 (대림동 1116-49)
☎ 02) 845-5095
-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전원
- | 문 의 |** 국장 백영자 목사 (010-3638-0120)
- | 후원계좌 |**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주제
“하나님과 동역하라”
- 고전 3:9 -

모시는 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려는 12월의 중턱에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섬기시던 목회사역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므로 주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소원하며,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교역자국 송년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

1부



말씀
고문 정부용 목사



사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기도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 사회 : 국장 백영자 목사
- 말씀 : 고문 정부용 목사
- 기도 :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
- 지부장 소개 및 인사

2부 : 조별 및 전체 코이노니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2시~오후1시	점심식사(오시는대로 자유롭게)	2층 교회식당
오후1시~오후3시	송년예배 및 합심기도	대 예배실
오후3시30~오후5시	조별 편성 및 기도제목 나눔	3층 소성전
오후5시	저녁식사 후 귀가	2층 교회식당

● 11:30부터 점심입니다

조 직

임원단



운영부장



예배부장



선교부장



목자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부장



행사부장



친교부장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부의 지부장



서울중남지부의 지부장



서울강남지부의 지부장



경기지부의 지부장



경기중남지부의 지부장



경기남지부의 지부장



경기중북지부의 지부장



경기북지부의 지부장



인천지부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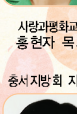
인천지부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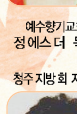
충청지부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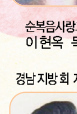
충청지부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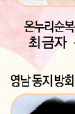
시흥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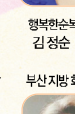
예수영교회
정예스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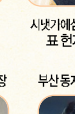
순복음시랑교회
이현옥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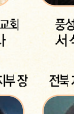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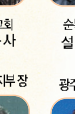
흥원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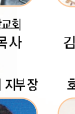
새빛가메살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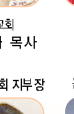
정성현성명교회
서석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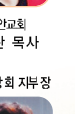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목자교회
김해시바 목사



눌봉안교회
서명만 목사



예수시랑교회
한성숙 목사



충서지부의 지부장



충주지부의 지부장



강남지부의 지부장



영남동지부의 지부장



부산지부의 지부장



부산동지부의 지부장



전북지부의 지부장



광주지부의 지부장



호남지부의 지부장



은진지부의 지부장



은진지부의 지부장



정책위원장 조중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영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물에서
크고 작은 동·식물 그 모두를 가슴에 안아 돌보시는
완전하신 주님.

이 생명 주심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나아가리이까?
오직 택하여 사랑하여 주신 그 부르심을 입고,
자비로운 용서와 베푸신 긍휼이 나를 인도하사
사랑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였으니, 나아져 주저하며,
왜 아니 찬양하오리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눈빛으로,
타오르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가슴으로,
이른 아침 흰 장미꽃 위에 맺힌 영롱한 이슬보다
더 맑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달차지 못한 미숙아처럼 부족한 저를,
눈 뜸 장님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머거리,
먼지와 오물을 뒤집어쓴 절뚝발이였던 저를 주님의
수레에 태우시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하신 주님!

한없는 감사와 눈물로
말 못하고 서서 울먹이는 가슴만 쓸어내립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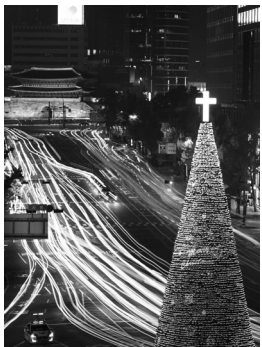
2019 CTS 대한민국 성탄축제 성탄트리 점등식 가져

〈대한민국에 성탄의 빛을 비추다!〉

서울시와 CTS기독교TV(이하, CTS) 그리고 영
락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CTS 대한민국 성
탄축제>가 11월 16일(토) 오후 5시에 서울광장에서
정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점등식에는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과 영락
교회 김운성 목사,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
관, 서울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본부장, 더불어 민
주당 정세균 의원,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 이동섭
의원과 지상욱 의원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
공사 참사관 미셸 모스 등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CTS공동대표이사 전병구 감독, CTS공동대표이사
김종준 목사 등 기독교계 대표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운성 목
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예수님
께서 오신 소식은 어떻게 크고 기쁜 소식인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
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크고 기쁜 소식이다. 이대
한민국에 예수님의 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

란다. 이 서울시청 광장은 지금도 광장 주변에서 여
러 가지 소식과 소리들이 범벅이 된 채로 들리고
있다.

시청을 시작으로 광화문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 이 여러 소식들과
소리 중에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이쁘게
하는 소리가 잠잠해지길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 대표단이 동
참했다. 서울경찰청 정재민 총경을 비롯해 소방공
무원과 군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점등 스위치
를 눌렀다.

LED를 통해 8개의 크리스마스 패턴으로 표현된
성탄트리가 점등되며, 대형트리에 불이 켜지고, 시
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축제가 총
90분에 걸쳐 진행됐다.

사설

한미동맹의 중요한 끈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유사시 주한미군과 주일미
군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공유를 매개로 한·
미·일 3국을 한데 묶는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맞서
는 동아시아 연합 전구 구축도 가능하다. 즉 한국이 지
소미아를 지켜주는 것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보
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끈이 된다. 일
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
을 초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의 이같은 전략적 가치를
무시한 채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도, 효용성도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6일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 교류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내포한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현재 5만명이 넘는 주일 미군의 일차적 임무도 한반
도 유사시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쿄의 주일
유엔군 사령부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오로지 그 목적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에서 공수될 증원군의 1
차 집결지는 오키나와에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거부하면 일본과 주일
미군이 북의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된다. 결국 한일군사정

보교류는 한·미·일 3국이 이어주는 끈이며, 유사시 위
협에 3국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전략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70년간 역대 변역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협력 체계가 더 큰 위협에 직면하
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작할 수 있는 발미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
각하게 저해하는 조치이자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은 “한반도로 우매한 결정이며 한·미
동맹까지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상
황에 직면해있다.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
하고자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핵무기에 의한 응징보복이 있어야 그것이 두려운
북한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남북한
의 평화공존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강력한 핵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게 그러한 힘을
과시할때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물론이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 무시 국제사회 맹비난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 2명을 우리 정부는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
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그들이 선상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실치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지(死地)로 돌려보낸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내지, 미개국으로 비난
받을 상황이 되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6년 발효한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강제 복송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악랄한 고문
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비
난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의
‘강제 복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일어나

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
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범죄 행위가 확인되
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복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 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인권 국가였다.
그런데 동성애, 성인간 교육과 지원, 전대 용호 등 사회윤
리와 도덕을 허무는 것에는 엄청난 관심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미개국 내지,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상황인
데, 오히려 인권 유린과 인권 무시 국가라는 오명을 뒤
집어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 눈치 보기보다 더 중요
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메일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총회목회대학원 졸업예배

(사이버신학연구원 제3회, 총회신학교 제9회, 총회목회대학원 제12회)



2019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9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11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사이버신학연구원·총회신학교·총회목회대학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 시 2020년 1월 6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회 회의)

장 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02)2675-5181~3

참 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0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치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